

무로 코포레이션([株]ムロコーポレーション) 일본 중소기업의 파워

(1) 기업개요

소재지	東京都世田谷区上野毛1-4-10
설립연도	1958년
분야	자동차관련부품 등 초정밀프레스부품
자본금	10억 9526만 엔
URL	http://www.muro.co.jp

(2) 생산 제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진정한 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부품 분야의 일본 중소기업이 적지 않고, 이들 업체가 생산을 멈추기라도 하는 날에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관련 업체들의 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만 알려졌던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07년 7월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지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던 자동차 부품회사 리켄(理研)의 부품공급이 중단되자 일본 내 12개 모든 자동차회사가 생산차질을 빚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일본 자동차 업계의 취약성을 노출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한동안 시끄러웠다. 그러나 반면 일개 중소 부품회사의 저력이 얼마나 큰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도요타의 5만 5000대를 포함하여 총 13만대의 자동차의 생산차질로 이어진,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일본의 모든 자동차회사가 복구현장으로 천 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왜 파견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힘 있는 중소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또 찾는다면 단연 무로코포레이션(이하, 무로)이 우선순위 1위에 오를 것이다. 초정밀 프레스가공기술이 이용되고 금형의 설계 · 제작에서 부품의 대량생산까지를 일관해서 만들어지는 이 회사의 제품은 무려 18,000종류에 달한다. 매출의 80%는 자동차관련 부품이고 나머지는 전자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 등이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업체 모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자동차와도 계열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독자노선을 줄곧 유지해 온 회사로도 유명하다.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은 결국 자동차 생산대수에 의해 좌우된다. 최근 자동차부품업체의 사업 환경이 과거에 비해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완성차업체 대부분이 세계 최적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구매비용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부품조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절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엔진과 브레이크와 같은 메인부품이 아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개발의 최종단계에서 주문이 발생된다. 이러한 유형의 부품은 종래에는 2차, 3차 하청의 중소부품업체가 제조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완성차업체가 과거 거래실적과 기술력을 근거로 협력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무로와 같은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3) Only-One 기술

무로의 핵심기술은 금형의 설계 · 제작이다. 대량생산의 노하우가 가득 차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분야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제조기술력의 원천이 이러한 세계적인 기능인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는 가령 완성차업체와 계열관계에 있더라도 품질, 비용, 납기 측면에서 항상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결국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완성차업체와의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거래관계는 경쟁에 휘말려 경영파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 회사는 1958년에 설립된 이후 프레스가공 기술에 전념하여 새로운 가공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그 결과 종래의 프레스가공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형상과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여 세상에 선보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계장치의 움직임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톱니바퀴 모양의 부품이 있다. 회전각을 체크하여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연료 분사시기(噴射時機)를 조정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종래에는 주조(鑄造)와 용접을 조합하여 시간을 들이며 제조했으나, 이것을 프레스가공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확립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기계가공과 정밀주조 등의 분야에서 제조되던 것을 프레스가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경량화를 실현시킨 부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제품에 따라서는 3분의 1까지 기존가격을 낮춘 경우도 있었다. 1%의 비용절감을 위해 온힘을 다 쏟는 완성차업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이 회사는 금형 제작뿐 아니라 지속적인 공장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을 실현시킨 것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형의 자동창고와 연동한 무인수송차를 도입하여 공장 가동률을 올려 작업효율을 제고시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량생산에 적합한 프레스가공일지라도 다품종소량생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무로의 강점은 완성차업체와의 계열관계가 아닌 독자노선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분명 계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인적, 물적 관계가 맺어지면 영업은 물론 기술이전과 같은 부산물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각각의 우수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개발과 생산 노하우도 오히려 폭 넓게 축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4) 자사상품으로 승부

현재 이 회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사제품 개발이다. 수주하는 상품만을 생산하면 언제까지나 하청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자사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흐름을 감지하면서 최종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이미 자사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개발에 성공한 기발한 상품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연속해서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비스라يدر”(vislider)라는 기계이다. 연속해서 나사를 카트리지(cartridge)에 넣고 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일 수 있는 기계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주로 북미와 북유럽 등 세계 20여국에 수출되어 건축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품은 1987년에 뉴욕에서 열린 세계발명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과일껍질을 자동으로 벗길 수 있는 기계이다. 오렌지와 같이 두껍고 부드러운 껍질이라도 불과 몇 초면 충분하다. 속도가 빠른 것뿐 아니라 손으로 직접 깎는 것과 비교하여 잡균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참고자료>

무로 코포레이션 홈페이지(<http://www.muro.co.jp>)

木村元紀(2005), 『中小企業ですがものづくりでは世界でトップです』, 洋泉社.
 経済産業省 中小企業庁編(2006),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